

# 상호인정 통일의 시금석

## 강연요지... 남북관계 대한 주한 몽고대사 초청강연

이들은 지난 9월6일 동북아연 구원(원정 조영원 교수)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외교관제' 초청 강연회의 제1차 행사로서 페렌레인 우르진순데프(Pereleyn Urzhinskyy) 주한 몽고대사가 남북한 관계에 대한 강연 내용을 사회와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이 강연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편집자 주]

이날 강연의 발표자는 북한에 오랫동안 있었고 주북한 몽고대사를 역임했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불교, 양반 반전적 북한을 떠났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치학과, 사회학, 경제학등의 교수 및 대학원생 30여명이 참석한 이 강연은 약 1시간 동안의 발표와 50여 분간의 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몽고공화국은 면적 1백56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2백20여만명으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극히 낮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특히 높은 산악지대로 13-14세기 몽골은 정복을 통하여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며, 고려는 70여년간 그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고 우리 2차대전후 사회주의 국가가 된 후 우리 한국과는 외교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몽고대사는 중국, 소련등 강대국의 틀바구니에서 시달린 몽고는

그 때문에 세계적인 정복 국가를 건설할 수있었다고 전제하고 현대사에 있어서는 한국과는 직접적으로 불평한 관계가 없어 극히 객관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반도의 분단이 초강대국간의 이해·갈등의 산물이며 냉전체제의 해빙기부터는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바와 다를 바 없었다. 1980년도 중반의 회화 무드보다 훨씬 급격하고 폭넓은 현재의 변화는 분단국이었던 예멘과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했으며 그것은 남북한의 접근이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그는 진단하고 있었다.

한편 그는 한반도의 정세와 직접 관련된 미국·소련·중국·일본 등이 표면적으로는 모두 한반도의 통일에 긍정적으로 합의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내지 통일의 길은 아직 양측의 경제·사상·인습 등의 차이가 크므로 너무 성급해서는 안되고 점진적이며 평화적이어야만 함을 강조했다.

남북한의 통일은 결국 한국민족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아직 '한국말'과 북한의 '조선말'을 구분하는 것은 통틀어서 외교관인 그가 '북한의 억양'을 안다고 칭찬받는 것은 어딘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것은 남과 북의 어떤 말이든 같은 공동의 언어로 인식해야 한다는 충고이며 또하나의 교언(苦言)이기도 하다.

한편 지금 거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북간의 대화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서로의 자존심을 억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GNP를 지나치게 자랑하여 협상과 대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함을 주시여 말하는데 우리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너무 적었으며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1천만명이 넘는 이산가족의 재회는 도덕적이고 인본적인 과제로서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는 강조했다.

남북한의 통일을 앞당기는 문

공통체 제의와 유사한점이 많이 상충한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끝으로 그는 접촉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대국에 제가 불리하지 않는 독자적인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대방이 마주앉아 토론이나 타협이 어려운 현실에서 '다자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한 경제 협력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 및 토론은 여러 흥미있는 문제들을 보여주었다. 몽고의 정치·경제·체제의 자유화, 민주화 및 시장 경제에 대한 진전 및 방향을 묻는 질문

의 어떤 명백한 개념이나 방향이 라기 보다는 오직 자유롭고 인간화된 삶을 위한 사회 건설에 있다고 강조한다. 사실 이문제는 몽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소련 및 동구 전체가 직면한 문제로서 그들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그 사회에 맞는 변증법적 발전을 하겠지만 현실에는 틀림없다.

몽고의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 서 소수민족을 묻는 질문에 국가 소유, 개인소유, 사회소유, 사회단체소유등이 있으나 특히 가족이 많은 몽고에서는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기르는 양을 잡아 먹

는 북한인들은 생활력이 매우 강인하며 비록 낙후한지 못해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강인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려가 몽고의 침략을 받은 문제와 양국간 문화교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7백년전의 역사적 사실이 지금 양국관계에 장애가 될 수 없으며 그 당시에도 몽고는 고려에 대해서만은 매우 관대했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문화교류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다짐한다. 특히 조선 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때 몽고학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그의 말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위대한 정복자였던 징기스칸을 현재 몽고인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는 아직도 많은 몽고인들로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몽고인의 긍지가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2차대전후 소련을 중심으로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들은 오직 전체 사회주의 국가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민족이나 국가의 지역성을 애써 부정하던 경향에서 즉 동유럽과 서유럽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초민족국가로 부터 민족국가로의 역사적인 조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소련사회의 급속한 변혁에 따라 우리 남북한 관계의 결정적인

접근에 대한 상세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접착적인 통일이 바람직하며 이는 오히려 사회의 안정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매우 외교적으로 답변하였다.

끝으로 그는 남북관계에 있어 서 노력의 김일성 주석은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점은 특히 그가 생전에 어떤 획기적인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반적으로 이 강연은 우선 한국에 대해 진정되었고 전적 북한대사이며 사회주의 국가의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대로 우리가 어떤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단조하고 성급하게 찬양하거나 비판하는 자세 보다는 항상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한 사회의 붕괴나 그 후의 방향 또는 그 실상들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물론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한 것조차도 너무 많이 모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편협한 시야나 판단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기록·정리: 신동철(원대교수·사회학)

## 남북한 통일방안 상당한 접근 이루어져 접촉 통해 신뢰회복·독자적 자세 견지해야

이것이 됐다 생각한다. 특히 한국인의 대부분이 대화와 협상의 선택권을 오직 북한에만 있다고 생각해서 안되며 그것은 한쪽에도 마찬가지로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마도 이 문제는 우리의 통일로 가는 길에 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시작해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의 병은 북한이나 공산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나 그 어느곳에도 있을 수 있으며 그 병에 대한 처방과 투약, 치료도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모순과 좌절을 겪은 사회주의가 그의 병폐를 우리 식으로 치유한 하먼 곧 개선될 것이라는 단순하고 성급하게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보다 냉철하게 생각하도록 해주는 하나의 경구가 될 것이다.

그는 그동안 남북한 교류에 관해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는

에 대해 그는 70년간의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과 병폐가 발견된 이상 다시는 그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변혁의 방향은 '인간화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몽고인들은 독재를 청산하고 정치적으로 다당제를 도입하였으 며 시장경제 및 가격 자유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 또는 자유 민주주의 등

는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한편 북한의 다자간 협력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소련·중국의 경제 기술원조를 받았던 북한에게 자금 그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다자간 협력은 매우 시급한 것이란 말이었다.

북한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



수원 초대 학생생활연구소장

장일순 교수

## "올바른 가치형성에 일익"

"갑자기 맡게 된 자리이기애 어찌 무겁습니까. 하지만 '청년사회학'에 남달리 관심이 많

았기에 학생생활연구소장을 운영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라고 수원캠퍼스 초대 학생생활연구소장을 맡은 장일순(사회대·사회학)교수는 간단히 소감을 밝혔다.

지난 4월 신설되어 개강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생활연구소의 역할은 주로 각종심리검사와 인간관계 및 성격문제, 진로 및 취업문제, 종교문제, 이념 및 학생운동 정치 및 사회참여 등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갈등 하는 학생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이들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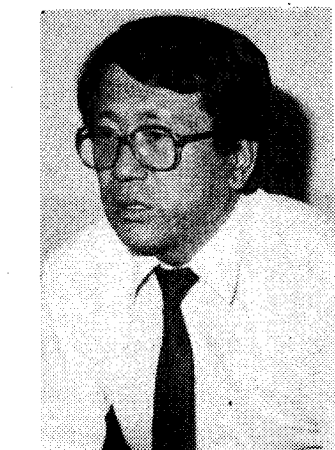
치에 학생생활연구소를 운영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라고 수원캠퍼스 초대 학생생활연구소장을 맡은 장일순(사회대·사회학)교수는 간단히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교수는 이념·학생운동, 정치 및 사회참여 등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갈등 하는 학생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이들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

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여러 교수들의 논문을 실을 예정이며 매년초에 발간될 계획이다.

한편 연구소 운영에 가장 중요한 학교의 지원 즉, 예산확보에 대해 장교수는 "전체예산 확정후 4월에 연구소가 개설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으나 임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데 있어 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배려해 주었다."고 밝혔다.

소장직에 상당연구원 한명과 장학조 한명, 근로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생활연구소는 현재 학생회관 2층 222호에 위치해 있으며 오전 9시30분에서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운영되고 있다.



회의 문제점을 밝히고 비판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임이다. 기성사회에 물들지 않은 신선한 시각에서 기성사회를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은 필요하나 한 사람에게 치우쳐 행동하는 것은 그 뜻만 있어도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사회화를 위해 학생운동이 추구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한편 연구소는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10월 중순 '대학문화'라는 주제에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교수·학생 공동세미나를 갖을 예정이다. 이어 요즘 전반적인 학생들의 의식과 활동에 대해 '현사

## 각종 심리 검사 및 학생 상담에 주력 10월중 교수·학생 공동세미나

치료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장교수는 연구소의 주된 업무로서 12월 21일까지 진행된 심리검사와 자아개념검사의 심리검사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10월 중순 '대학문화'라는 주제에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교수·학생 공동세미나를 갖을 예정이다. 이어 요즘 전반적인 학생들의 의식과 활동에 대해 '현사

## 공동체 의식 아쉬운 대학사회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특성 상 어느 곳보다도 사회정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예전부터 행해졌던 이같은 대학의 특성은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또한 발전케 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의는 상이한 양상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는 소리가 크다. 그건 바로 우리 옆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리인 지도 모른다.

▲지난 10월 오후 5시20분경 수원캠퍼스외국어교육관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외대 불문과 여학생이 선배와 대화를 나누며 승차장쪽으로 걸어가다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에 치인 것이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캠퍼스의 지리적 특성상 한방정 수의 스쿨버스와 전철을 변경하여 타야 하는 불편함, 날로악화되어 가는 고속도로

의 사정등으로 인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학생들의 자살 등교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운전자가 좌회전 금지지선을 준수하면 한 상 통행이 많은 그곳에서 한결 주의를 했다면 피할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사고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했다. 이를 지켜본 관공리의 한 직원 "인도와 차도의 구분조차 없는 도로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설치하는 문제들을 구상했었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시일이 오래 걸려 쉽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인권복지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었다. 그 결과 이번 9월말부터 아르바이트 학

생 5~6명 정도를 고용하여 교내 교통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도 주고 교내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차원에서 차원에서 해결을 볼 수 있을 이 시안은 결과가 좋을 것인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에 앞으로 또다시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다수 보행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주의적 병폐와 부주의함, 외국어교육관앞에 세워진 교통 표지판과 20km 속도제한등을 무시한 준법정신의 결여등이었다. 일부 운전자들의 횡포-운전 상의 부주의, 다수 보행자를 향한 공동체적 결여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 1991학년도 2학기 최종 등록 공고

1991학년도 2학기 최종 등록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빠짐없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기일: 1991년 9월16일~17일(2일간)  
2. 장소:  
가. 재학생-서울신학은행 전국 본·지점  
나. 부학생-서울신학은행 회계동지점  
\*부학생은 학과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수령하여 서울신학은행 회계동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 1991학년도 2학기 최종 등록 공고

91학년도 2학기 최종 등록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기간: 9.16(월)~9.17(화) 2일간  
2. 등록장소: 가. 서울신학은행 전국 본·지점 (금회기 부학생 제외)  
나. 수원캠퍼스 교무처  
3. 유의사항:  
가. 최종 등록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비등록 장학생 포함)은 "비등록 제제"처리되며, 나. 위 기간내에 등록이 되지 않은 학생(91학년도 신입생 제외)은 최종 등록기간에 휴학하는 경우 비등록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 제도는 환원하지 않습니다.

수원캠퍼스 교무처장

### 취업정보실 이용안내

학생처에서는 졸업후 취업안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취업정보실을 개설,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취업 및 진로상담
2. 취업정보제공  
추천의뢰기업소개, 최근 채용공고, 취업·수험 뉴스, 업체별 과거 취업 정보, 자격증 취득정보, 기타 데이터통신(주) 취업정보은행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본교에 접수되는 각기업체 취업추천의뢰공문
3. 취업준비안내  
시사상식, 면접시험요령, 이력서작성법, 자기소개서작성법, 논문·작문작성법, 작성·인성검사요령, 취업준비강의안내등
4. 취업자료 열람
5. 취업희망카드 접수  
사전 1배 부속하여 취업희망카드를 작성 제출바람.  
\*위치:서울캠퍼스 학생회관 1층  
\*기타 자세한 내용은 취업정보실을 방문하거나 서울캠퍼스 학생처 취업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 961-0045~48, 0167)

서울캠퍼스 학생처장

### 학생의료공제회 이용안내

1. 학생의료공제회: 본교 학생이 예상치 못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고액의 진료비 발생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불행에 방지하기 위해 직접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며 재학생 학생의 건강증진을 기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 공제회원: 본교 학생으로서 공제회비를 납부한자.
3. 공제회 지정 의료기관: 본교 보건진료소(제1차 진료기관) 경희의료원(치과, 한방포함) 병원급 이상의 진료기관
4. 요양급여기간의 제한: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학기당 통산 90일
5. 진료절차: 학생이 공제회 담당자로 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아 교내보건진료소(음악대학입구)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비 받고 보건소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함.
6. 공제비 인출절차:  
가. 이종기입회원(부모나 본인의 기존의료보험 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받은 회원)은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을 공제회(학생처내)에 제출하면 발표와 같이 공제비를 지급함.  
나. 일반 회원(공제회에서 진료카드를 발부받은 회원)은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가입자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처리하여 줌.  
다. 공제회원이 경희의료원을 방문하지 못함정도로 응급하여 타진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응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진료비 납입 영수증을 공제회에 제출하면 심사하여 공제비를 지급함.  
\*진료비 영수증으로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공제회원이 납입한 가입비 및 공제회비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반환될 수 없다.(의료공제회 회칙, 제39조)

경희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 '북한자료센터' 이용안내

본원에서는 북한 및 중국, 소련 기타 동구권 관련 정보·자료를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한자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 서울 캠퍼스 6층(동아일보사 옆)  
●소장자료 내역

| 분 류       | 자 료 내 역                                                                               |
|-----------|---------------------------------------------------------------------------------------|
| 문 헌 자 료   | ○북한 및 중국, 소련 기타 동구권 관련 국내외 도서 및 관련 정보·자료 문헌<br>○북한주의 원전 및 비문헌<br>○기타 북방정책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 |
| 정 기 간 행 물 | ○북한 및 중국, 소련 등에서 간행된 정기간행물<br>○기타 통일관련 국내외 정기간행물                                      |
| 시 청 자 료   | ○북한에서 제작된 각종 영상·음향 자료<br>○기타 통일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등                                          |

●이용 대상  
○일반자료: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  
○특수자료: 신원과 열람목적 확인 후 허용  
※단, 개인·단체의 경우 사전 협의 필요

●이용 시간  
○평 일 09:00~17:30  
○토요일 09:00~12:00

●북한정보 상의 날 운영  
○북한정보 급성화 상의  
○북한정보 급성화 상의  
○북한정보 급성화 상의  
※일반인이 관할(관할) 사정(사정)에  
※일반인이 관할(관할) 사정(사정)에  
※일반인이 관할(관할) 사정(사정)에

●특수자료 열람 및 토론회 개최  
○북한정보 대상 전문가·전문가, 교수·학자 등의 토론회 실시  
○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최  
※일반인이 관할(관할) 사정(사정)에  
※일반인이 관할(관할) 사정(사정)에

●이용 안내 TEL: 730-7013, 7014

통일원 정보분석실

### 취업정보실 이용안내

학생처에서는 졸업후 취업안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취업정보실을 개설,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취업 및 진로상담
2. 취업정보제공  
추천의뢰기업소개, 최근 채용공고, 취업·수험 뉴스, 업체별 과거 취업 정보, 자격증 취득정보, 기타 데이터통신(주) 취업정보은행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본교에 접수되는 각기업체 취업추천의뢰공문
3. 취업준비안내  
시사상식, 면접시험요령, 이력서작성법, 자기소개서작성법, 논문·작문작성법, 작성·인성검사요령, 취업준비강의안내등
4. 취업자료 열람
5. 취업희망카드 접수  
사전 1배 부속하여 취업희망카드를 작성 제출바람.  
\*위치:서울캠퍼스 학생회관 1층  
\*기타 자세한 내용은 취업정보실을 방문하거나 서울캠퍼스 학생처 취업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 961-0045~48, 0167)

서울캠퍼스 학생처장

### 학생의료공제회 이용안내

1. 학생의료공제회: 본교 학생이 예상치 못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고액의 진료비 발생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불행에 방지하기 위해 직접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며 재학생 학생의 건강증진을 기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 공제회원: 본교 학생으로서 공제회비를 납부한자.
3. 공제회 지정 의료기관: 본교 보건진료소(제1차 진료기관) 경희의료원(치과, 한방포함) 병원급 이상의 진료기관
4. 요양급여기간의 제한: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학기당 통산 90일
5. 진료절차: 학생이 공제회 담당자로 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아 교내보건진료소(음악대학입구)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비 받고 보건소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함.
6. 공제비 인출절차:  
가. 이종기입회원(부모나 본인의 기존의료보험 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받은 회원)은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을 공제회(학생처내)에 제출하면 발표와 같이 공제비를 지급함.  
나. 일반 회원(공제회에서 진료카드를 발부받은 회원)은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가입자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처리하여 줌.  
다. 공제회원이 경희의료원을 방문하지 못함정도로 응급하여 타진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응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진료비 납입 영수증을 공제회에 제출하면 심사하여 공제비를 지급함.  
\*진료비 영수증으로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공제회원이 납입한 가입비 및 공제회비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반환될 수 없다.(의료공제회 회칙, 제39조)

경희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